

##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국내논문분석 An Analysis of Studies on Clinical Nurses' Job Stress

최 서 란\* · 정 혜 선\*\*

### I. 서 론

병원은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갈등이 심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특히 직무특성상 대다수가 여성인 간호사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은 직장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취업기혼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정, 김, 이, 이와 권, 2001), 결혼한 임상간호사들도 이와 같은 이중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병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임상간호사들은 교대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업무능력과 생산성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임상간호사의 업무는 24시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간호를 수행하고 평가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일로서 항상 긴장된 상태를 요구하고 있다(김과 이, 1994). 뿐만 아니라 병원조직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공식적인 권한관계 수립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있으며(함, 1998), 항상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전문직업인의 위치에 있고, 환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도 있다

(Schaefer와 Moos, 1996). 과도한 업무와 전문적 사명감, 새로운 지식의 급증과 간호수혜자의 질적 간호요구, 복잡한 인간관계와 교대근무 같은 근무조건 등은 임상간호사에게서 나타나는 고유의 직업적 특성이다.

간호업무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많은 수의 임상간호사들이 심각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Abu Al Rub, 2000; 김 등, 2001). 간호연구 분야에서도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 중 직무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논문은 매우 많다. 김과 윤(2002)의 보고에 의하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중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75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등(1992)이 환자과 정상인을 대상으로 불안 및 스트레스 개념을 다룬 국내 간호논문을 분석하여 스트레스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 중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과 윤(2002), 이 등(1992)의 논문은 임상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임상간호사에게 나타나는 직무스트레스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이(1996)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다룬 논문이 1976년부터 1995년까지 55편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

\* 신촌세브란스병원

\*\*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교신저자

어서 최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직장인들에게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업무상질병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보건의료계에서도 2004년 4월에는 직무스트레스학회를 발족하여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책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노동부, 2003). 임상간호사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인으로서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지금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동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한 국내의 논문들을 분석함으로써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연구정보센터(richis)'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스트레스', 'stress'를 검색어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보건연구정보센터(richis)'에서는 보건, 의료와 관련된 91개 학술지의 논문과 22개 대학원의 학위논문을 제공하고 있어 보건, 의료와 관련된 논문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건연구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 중에는 일부 연도의 논문이 누락된 자료가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논문이 많이 게재될 것으로 예측되는 8개 학술지와<sup>1)</sup>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논문을 많이 발표한 5개 대학원의<sup>2)</sup>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경

희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누락된 연도의 학회지와 학위논문을 모두 검색하여 분석대상에 추가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4월부터 9월 까지 이었다.

### 2. 대상문헌

대상문헌은 1981년부터 2002년도까지 발표된 논문으로 하였다. '스트레스', 'stress'를 검색어로 하여 '보건연구정보센터'에서 찾은 논문은 모두 총 438편 이었다. 이 중의 대부분의 임상간호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으며 직무스트레스가 아닌 일반스트레스를 다룬 논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임상간호사가 아니거나 병원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간호사만의 자료를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여 임상간호사의 스트레스를 다룬 논문 96편을 선별하였다. 8개 학술지 검색을 통해 2편의 논문이 추가되었고, 5개 대학원의 자료를 검색하여 9편의 논문이 추가되어 총 107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 중 연구대상자가 보험심사간호사 등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 11편, 학위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중복 발표된 논문 12편,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아닌 일반사건 및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다룬 논문 9편,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연구 2편, 스트레스 관련논문 분석연구 1편 등 총 35편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총 72편이었다.

### 3.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연구대상 논문을 논문발표연도, 논문유형, 표본추출방법, 연구설계,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자의 근무부서, 스트레스 측정도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내용에 따른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 1) 발표연도 : 본 연구대상 논문의 발표연도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이다. 이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 2) 논문유형 : 학위논문, 비학위논문으로 분류하였다.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학위논문으로

1) 간호행정학회지, 대한간호학회지, 대한간호, 산업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등

2)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로 분류하였다.

- 3) 표본추출방법 : 확률표본추출법, 비확률표본추출법으로 분류하였다.
- 4) 연구설계 : 실험연구, 조사연구, 질적연구로 분류하였다.
- 5) 자료수집 방법 : 질문지법, 생리적측정법으로 분류하였다.
- 6) 연구대상자의 근무부서 : 일반병동·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정신과·기타부서로 분류하였다. 근무부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부서로 분류하였다. 부서별로 비교한 논문일 경우에는 각각을 근무부서별로 처리하였다.
- 7)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 분석대상 논문에서 사용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파악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 논문의 일반현황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의 발표연도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이다. 이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81년에서 1985년까지는 8편(11.1%), 1986년에서 1990년까지는 9편(12.5%), 1991년에서 1995년까지는 13편(18.1%), 1996년에서 2000년까지는 25편(34.7%),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17편(23.6%)으로 매년 간호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논문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구대상 논문의 유형은 학위논문이 54편(75.0%), 비학위논문이 18편(25.0%)이었다. 학위논문 중에는 경희대 11편(20.4%), 연세대 10편(18.5%), 가톨릭대 9편(16.7%), 한양대 6편(11.1%) 등이었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는 대한간호학회지 8편(44.4%), 간호행정학회지 4편(22.2%), 기타 6편(33.3%) 등의 순으로 발표되었다.

표본추출 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법이 100%이었다. 연구설계는 조사연구가 65편(90.3%)이었고, 실험연구가 6편(8.3%)이었으며, 질적연구가 1편(1.4%)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이 68편(94.4%)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생리적 측정법이 4편(5.6%)이었다.

근무 부서별로는 일반병동이 39편(50.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환자실 8편(10.4%), 응급실이

6편(7.8%), 수술실 5편(6.5%), 정신과가 4편(5.2%)이었으며, 기타부서가 15편(19.5%)이었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김과 구(1984)의 도구, 배(1984)의 도구, 홍의 도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 기타의 도구로 분류하였다. 김과 구(1984)의 도구를 사용한 논문은 26편(36.1%)으로 많은 연구에서 스트레스 측정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배의 도구는 6편(8.3%), 홍(1984)의 도구는 3편(4.2%),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는 14편(19.4%), 기타의 도구 23편(31.9%)으로 나타났다. 1-2편의 논문에서 사용한 도구는 모두 기타의 도구로 분류하였다(표 1).

〈표 1〉 연구대상 논문의 일반현황 (N=72)

항목	구분	실수 (%)
발표연도	1981-1985	8 (11.1)
	1986-1990	9 (12.5)
	1991-1995	13 (18.1)
	1996-2000	25 (34.7)
	2001-2002	17 (23.6)
논문유형	학위논문	54 (75.0)
	석사학위논문	51 (94.5)
	박사학위논문	3 ( 5.5)
	비학위논문	18 (25.0)
	학위논문	54 (75.0)
논문 게재지	경희대	11 (20.4)
	연세대	10 (18.5)
	가톨릭대	9 (16.7)
	한양대	6 (11.1)
	기타	18 (33.3)
	비학위논문	18 (25.0)
	대한간호학회지	8 (44.4)
간호행정학회지	4 (22.2)	
경북간호과학지	2 (11.1)	
기타	4 (22.2)	
표본추출방법	확률표본추출법	0 ( 0.0)
	비확률표본추출법	72 (100.0)
연구설계	조사연구	65 (90.3)
	실험연구	6 ( 8.3)
	질적연구	1 ( 1.4)
자료수집 방법	질문지법	68 (94.4)
	생리적 측정법	4 ( 5.6)
근무부서 (중복 체크) (N=77)	일반병동	39 (50.6)
	중환자실	8 (10.4)
	응급실	6 ( 7.8)
	수술실	5 ( 6.5)
	정신과	4 ( 5.2)
	기타	15 (19.5)
	김과 구(1984)의 도구	26 (36.1)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배(1989)의 도구	6 ( 8.3)
	홍(1984)의 도구	3 ( 4.2)
	연구자 개발	14 (19.4)
	기타의 도구	23 (31.9)

〈표 2〉 연구대상 논문의 연도별 현황

항 목	구 분	81~85	86~90	91~95	96~00	01~02	계	(%)
논문유형	학위논문	7	8	11	20	8	54	( 75.0)
	비학위논문	1	1	2	5	9	18	( 25.0)
연구설계	조사연구	8	9	12	21	15	65	( 90.3)
	실험연구	0	0	0	4	2	6	( 8.3)
	질적연구	0	0	1	0	0	1	( 1.4)
자료수집방법	질문지법	8	9	13	22	16	68	( 94.4)
	생리적 측정법	0	0	0	3	1	4	( 5.6)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김과 구(1984)	1	3	3	13	6	26	( 36.1)
	배(1989)	0	1	2	2	1	6	( 8.3)
	홍(1984)	0	1	0	1	1	3	( 4.2)
	연구자개발	4	3	3	0	4	14	( 19.4)
	기타	3	1	5	9	5	23	( 31.9)
계		8	9	13	25	17	72	(100.0)

2. 연구대상 논문의 연도별 현황

논문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6~2000년까지의 사이에 학위논문의 발표가 가장 많았다.

연구설계로는 1981~1990년에는 17편 모두 조사연구였으며, 실험연구와 질적연구는 한편도 없었다. 실험연구는 199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고, 질적연구는 1991~1995년 사이에 1편이 발표되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1981~1995년까지는 모두 질문지법이었으며, 1996년 이후 생리적 측정법을 이용한 자료수집이 증가하였다.

측정도구별로 1981~1985년에는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나 기타의 도구를 많이 이용하였는데, 1984년 김매자와 구미옥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가 개발된 이후에는 김매자와 구미옥의 도구를 이용한 논문이 많았다(표 2).

3.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된 개념에 대한 연구현황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된 개념을 살펴보았다(표 3).

관련개념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내용은 직무만족도가 11편으로 가장 많았고, 소진과 대처가 각각 9편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에 사회적 지지 7편, 조직몰입(적부몰입) 7편, 건강상태 7편, 강인성 4편, 건강통제위 4편, 업무수행정도 3편, 유머감각 2편 이었다. 이외에 자율성, 적성, 근무의욕, 자기효능감, 직장적응 등이 각각 1편씩 나타났다(표 3).

〈표 3〉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된 개념

관련개념	계	%
직무만족도	11	15.3
소진	9	12.5
대처	9	12.5
사회적 지지	7	9.7
조직몰입(적부몰입)	7	9.7
건강상태	7	9.7
강인성	4	5.6
건강통제위	4	5.6
업무수행정도	3	4.2
유머감각	2	2.8
자율성	1	1.4
적성	1	1.4
근무의욕	1	1.4
자기효능감	1	1.4
직장적응	1	1.4

IV. 논 의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도 최근 들어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논문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김과 윤, 2002).

김과 윤(2002)의 보고에 의하면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중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75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 개념을 다룬 국내간호논문 분석한 이 등(1992)의 연구에서도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는 논문 중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40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분야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주된 관심사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등(1992)은 스트레스 개념을 다룬 204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1970년대에는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1980년대에는 195편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55편의 문헌을 분석한 이(1996)의 연구에서도 1970년대에 발표된 논문은 1편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39편이었으며 1990년대 전반은 15편으로, 1980년 이후에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다룬 논문이 1990년대 후반에 25편이었고, 2001년-2002년의 2년간 17편이 발표되어 1996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 본 연구대상논문의 5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간호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석사학위논문으로 연구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1996)의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이 41.8%, 비학위논문이 58.2%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 많은 73.6%가 학위논문으로 작성되었고, 비학위 논문으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26.4%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학위논문으로 분류하였으나, 이(1996)의 연구에서는 둘 중 하나에 선택하여 분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94.2%)는 조사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등(1992)의 연구에서도 실험연구는 4.4%에 불과하고 95.6%의 연구가 비실험연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1996)의 연구에서도 조사연구가 94.5%이었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등(1992)의 연구에서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실험연구가 많았으나 그 외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비실험연구이므로 향후 실험연구에 역점을 둔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1996)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다양한 중재방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조사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6년 이후

발표된 42편의 논문 중에는 14.2%에 해당하는 6편의 논문이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실험연구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연구에서 실험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2003)은 산·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이 중환자실, 내과계 병동, 외과계 병동의 순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5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종사자 수도 많지만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1996)의 연구에서도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60.0%라고 보고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을 이용한 연구가 94.4%이었고, 생리적 측정법을 이용한 연구가 5.6%이었다. 이(1996)의 연구에서는 질문지법을 이용한 연구가 하나도 없었으나, 1996년 이후 생리적 측정법을 이용한 연구가 4편이 발표되어 일률적인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간호연구 발전의 일면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를 살펴 본 결과 본 연구대상 논문의 36.1%가 김과 구(1984)의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1996)의 연구에서도 김과 구(1984)의 도구를 직접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 연구가 30.9%로 나타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과 구(1984)의 도구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과 구(1984)의 도구에서 제시한 임상간호사의 스트레스 요인은 업무량 과중,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갈등,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상의 문제, 의사와의 대인관계상 갈등, 의사와의 업무상 갈등,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부적절한 대우, 상사와의 불만스런 관계, 부적절한 보상, 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 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업무 외의 책임, 익숙치 않은 상황, 밤 근무 등의 15가지이다. 이와 같은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타 직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간호사가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일부분을 경험하고 있지만 간호사는 그것들을 모두 포함한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원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미국 국립산

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수행하여 NIOSH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Hurrell과 McLaney, 1988). 본 연구대상 논문을 분석한 결과 김과 구(1984)의 도구를 사용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최근의 변화된 의료 환경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김과 구(1984)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기타의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31.9%에 이른다. 정과 양(1993)은 Q방법론에 의거 임상간호사의 스트레스 경험유형을 새롭게 분석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도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개념으로 연구된 논문 중 직무만족도와 관련되어 연구된 논문이 제일 많았다. 외국에서도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Decker, 1997). NIOSH의 직무스트레스 모델에서는 직무만족도로 인한 급성반응의 하나로 직무만족도 저하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직무만족도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갖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신, 2001). 직무만족이 높은 수준에 있는 개인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직무만족 수준이 낮은 사람은 직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직장인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직장에서의 생산성 저하 현상을 나타내며,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환자 간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Kangas, Kee와 McKee-Waddle, 1999; McGilton과 Pringle, 1999). Peterson과 Dunnagan(1998)은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직무설계와 직장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Kangas 등(1999)은 지지적인 환경조성이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Dahl과 O'Neal(1993)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가장 많이 관련되어 연구된 개념이 직무만족도이므로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수행되어 왔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직무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조사연구이므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험연구 등이 보다 많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논문의 단편적인 분석을 통해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현황을 파악한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는 메타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심도 깊은 분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주제로 연구한 국내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최근 연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연구정보센터(richis)'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기타 학회지 및 학위논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총 72편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논문의 발표연도는 1981년부터 2002년도까지이며 1996년 이후 매년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 논문의 유형은 학위논문이 75.0%이었고, 연구설계는 조사연구가 90.3%이었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이 94.4%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근무부서는 일반병동이 50.6% 이었고,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김과 구(1984)의 도구를 이용한 논문이 36.1% 이었다.
3.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개념 중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은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것이었고, 다음으로 소진과 대처에 관한 개념이 많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조사연구이므로 향후에는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

에 관한 실험연구가 보다 많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연구에는 메타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심도 깊은 분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References

김매자, 구미옥 (1984). 간호원이 근무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4(2), 29-37.

김윤희, 이광자, 유숙자 등 (2001). 정신간호총론 상. 수문사.

김정희, 윤순영 (2002).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간호 논문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4), 618-628.

김현숙, 이소우 (1994). 교대근무 형태의 차이가 circadian 리듬의 수면과 체온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논문집*, 8(1), 93-107.

노동부 (2003). 산업안전보건법

문경원 (2003). 임상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유근 (2001). 인간존중의 경영. 다산출판사.

이명하 (1996).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논문 분석. *성인간호학회지*, 8(1), 180-200.

이은옥, 이은주, 이은희, 전경자, 김주현, 박재순, 이병숙, 정면숙 (1992). *대한간호학회지*, 22(3), 271-296.

정순영, 양진향 (1993). Q연구방법론에 의한 간호사의 스트레스 경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2), 269-283.

정혜선, 김혜영, 이현경, 이윤정, 권영숙 (2001). 취업기혼여성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및 대처전략에 관한 구조모형. *산업간호학회지*, 10(1), 93-109.

함미영 (1998).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강인성 및 소진정도의 관계.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Abu, A. I., Rub, R. (2000). Legal aspects of work related stress in nursing-Exploring the issues. *AAOHN J*, 48(3), 131-135.

Dahl, J., O'Neal, J. (1993). Stress and coping behavior of nurses in desert storm.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31(12), 17-21.

Docker, F. H. (1997). Occupational and nonoccupational factors in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nurse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 453-464.

Hurrell, J. J., McLaney, M. A. (1988). Exposure to job stress-A new psychometric instrument.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4, 27-28.

Kangas, S., Kee, C. C., McKee-Waddle, R. (1999). Organizational factors, nurses' job satisfaction and patient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JONA*, 29(1), 32-42.

McGilton, K. S., Pringle, D. M. (1999). The effects of perceived and preferred control on nurses' job satisfaction in long term care environme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2, 251-261.

Peterson, M., Dunnagan, T. (1998). Analysis of worksite health promotion program's impact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40(11), 973-979.

Schaefer, J. A., Moos, R. H. (1996). Effects of work stressors and work climate on long-term care staff's job morale and functioning.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9, 63-73.

- Abstract -

## An Analysis of Studies on Clinical Nurses' Job Stress

Choi, Seo Ran\* · Jung, Hye Sun\*\*

**Purpose:** To understand the recent trend of studies for nursing job stress, we collected

\* Severance Hospital

\*\* Graduate School of Occupational Health, The Catholic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orean articles about job stress of clinical nurses. **Method:** Seventy two articles were selected from the database of "richis", Korean journals of related academic society, and dissertation papers, which are presented from 1981 to 2002. **Result:** The trend shows that the number of researches for the job stress of clinical nurses are increasing from the year of 1996. Most of the researches are for dissertation papers (75.0%), have done surveys (90.3%), and used questionnaires (94.4%). The nurses who were studied have their jobs in general wards of hospitals (50.6%). And 36.1% of the researches used

the tool of Kim and Gu (1984) to measure job stress. These researches focused mainly on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coping successively. **Conclusion:** As only 6 out of 72 researches examined in this study have experimental design (8.3%), it can be said that more experimental studies are needed in this area. And we might also consider to use meta-analytic techniques for further studies, because these researches have used very similar tools for the same subject.

Key words : Job Stress, Clinical Nurse